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웅식

## “고수의 농사비법, 현장에서 배우세요”

장성군이 최고 수준의 농장을 배움터로 삼아 실시한 현장 중심 교육 3-UP 현장이답(現場而答) 프로그램이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만족을 얻으며 결실을 맺고 있다.

3(기술·생산·소득)-UP 현장이답(現場而答)은 사과, 감, 딸기, 약초 4개 품목의 영농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농기술교육으로, 농가의 기술·생산·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장성군이 올해 새롭게 만들었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150여명의 농업인을 상대로 최고 기술력을 갖춘 선도 농업인의 농장에서 생산 단계별 영농 기술과 농장 관리 노하우 등을 전하는 ‘현장이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성의 대표 과일인 사과의 경우, 재배 방식이 표준재배와 밀식재배 두 가지 기술 모두 교육 수요가 있는 것을 고려해 두 개 과정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

### 장성군, 참여형 영농기술 교육 ‘현장이답’ 운영 사과·감·딸기·약초 4개 품목 영농노하우 전수



다.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생이 자신의 농사 비법이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이웃 농업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약초 교육생들은 실제 약초를 재배해 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동 텃

밭을 조성하고 40여가지의 약초를 직접 길러가며 현재까지 모임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과 교육생들은 연구 모임을 결성해 매일 한차례씩 교육생들의 농장을 순회하며 서로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교육이 진행돼 많은 교육생이 장기간에 걸친 교육 기간도 꾸준히 참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성공 비결을 밝혔다.

김용근 교육생(삼서면)은 “농업 기술은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체득해야 효과가 높는데, 선도 농업인들이 친근하게 잘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현장중심 농업기술을 확대해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갈 방침이다.

정성=반정모 기자

### 신안군, 도서해양자생식물공원 기공식

세계고동전시관 건립사업 행사도 함께 열려

신안군은 지난 23일 내년 하반기에 압해읍과 압태면을 잇는 새 천년대교가 개통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신안자연휴양림에서 ‘세계고동전시관 및 도서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세계고동전시관은 해양자원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 해양생태관광 사업이며, 이와 연계된 도서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섬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도서자생식물테마공원 30ha 내 세계고동전시관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에서부터 사업 승인까지 행정절차를 지난달까지 완료하였다.

지상1층 규모의 전시관(975㎡)은 전시실, 체험교육관, 수장고

등 시설을 갖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고동(3,349종, 1만여 점)이 전시되며, 테마공원(30.2ha)에는 십자형도로, 잔디광장, 쉼터, 썬라이즈 정원, 센트럴파크, 해시계광장, 달빛정원, 미로우실공원, 바람의 언덕, 연못공원이 조성된다.

이 사업들은 세계고동전시관(35억 원), 도서자생식물테마공원(29억 원)이 투입이 되며 도서자생식물보존센터, 농업기술센터 종합연구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 새천년대교가 개통이 되기 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관광관문이 될 ‘세계고동전시관’과 ‘도서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은 “우리가 먹고 살 미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박웅식 기자

### 고흥군, 쌀 품질분석 ‘무료 서비스’ 제공

고흥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쌀 품질 및 성분을 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쌀 품질분석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농업기술센터 내 쌀 품질분석실에서 쌀 외관검사를 하는 미립판별기로 정삼립, 미숙립, 찌라기 등 비율을 알려주고 성분분석기로 밥맛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수분, 아밀로스 등의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주며 벼 품종 분석이 가능한 유전자 분석 장비를 통해 품종도 판단할 수 있다.

쌀 품질분석은 고품질 농업인이라면 무료로 제공받으며, 시료량은 벼 500g(종이컵 3컵)을 봉투에 담아 연락처, 품종명, 도복유무 등을 기재해 쌀 품질분석실에 맡기면 7일 이내에 쌀 품질분석표를 받아 볼 수 있다.

쌀 품질분석표는 쌀의 품질을 수치로 표시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며, 농업인은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적정 비료관리 등 영농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영농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쌀 품질분석 서비스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도입해 고품질 쌀을 전국 최고의 명품 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영광 대마면, 태청산 등산대회 개최

내달 5일 오전 10시

영광군 대마면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태청산에서 대마면반영회 주관으로 ‘제16회 태청산 등산대회’를 개최한다. 군내 최고봉으로 편백군락지인 태청산(593m)은 울창한 편백숲을

자랑하며, 남녀노소 산행이 가능하고 완만한 등산로와 함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등산대회 코스는 남산 상평마을위 삼거리 주차장에서 출발→물치→헬기장→태청봉까지 1.7km로 약 2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산행에 앞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산행 후 행사담당 참석자에게 떡국과 다과를 대접하며, 기념품과 다양한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편백향이 그윽한 태청산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보성군, ‘제16회 벌교꼬막축제’ 개최

오는 27일부터 3일간 벌교읍 천변과 장양갯벌체험장서



가을 남도의 대표축제인 벌교꼬막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일간 보성군 벌교읍 천변과 진석리 장양갯벌체험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갯벌과 벌교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벌교꼬막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귀동) 주관으로 열린다.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꼬막끼기, 꼬막 삶고 시식하기 등 다채로운 꼬막 체험행사와 소설 태백산맥 무대를 가족과 함께 문학기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보성군 국악협회 시가지 행진을 시작으로 대형 꼬막비발발 만들기, 옷놀이, 지역동아리 공연, 꼬막단체 줄넘기대회, 꼬막노래자랑, 불꽃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체동신합창단, 체동신어린이합창단 공연, 태백산맥문화기행 OX퀴즈, 꼬막 무료이벤트, 바퀴달린 날베타기대회 등 체험행사

와 개막식, 읍민의 날 행사, 불꽃쇼, MBC 축하공연 등이 화려하게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벌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벌교환! 벌교인!’ 그리고 어울림이 펼쳐지며, 꼬막 무료이벤트, 청소년 k-pop 경연대회, 불꽃쇼를, 장양갯벌체험장에서는 갯벌 허리줄다리기, 꼬막잡기, 날베타기 등 갯벌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전시행사로 벌교역사문화 전시, 태백산맥 인물공예품, 꼬막제작 사진 및 도구 전시와 보성녹차 무료시음, 꼬막캐릭터와 사진 찍기, 소원등 달기 등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아울러, 해설사와 함께하는 ‘소설 태백산맥 문화기행 스탬프투어’를 새롭게 선보여 벌교를 찾는 관광객들이 투어버스로 벌교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게 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함평군, 엑스포공원 다육식물관 새단장

8억원 들여 유리온실 신축하고 기존 식물 재배치

함평군이 함평엑스포공원 다육식물관을 새롭게 조성해 올해 대한민국 국경대전부터 문을 열었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기존 식물관은 면적 1324㎡로 독일 달렘식물원에서 희귀다육식물 원종 2108종 9106본을 직수입해 2009년 4월 처음 개장했다.

매년 70여만 명에게 다양한 식물의 세계를 선보였으나, 나무 높이가 전시관 천정 높이까지 자라 매년 식물가지자를 자르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기존 전시관 옆에 높이 8m, 면적 1155㎡의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종별 특성에 맞게 다육식물을 재배치했다.

지난 20일 열린 개관식에서 안병호 군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

생한 다육식물관이 더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물들이 잘 성장하고 번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관주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은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사막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다육식물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관람하며 아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엑스포공원 다육식물관은 2개동 2,479㎡ 유리온실에 2,350여종 2만600여 본의 다육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평엑스포공원에선 지난 20일부터 11월5일까지 2017 대한민국 국경대전이 열리고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